

민주화운동의 단계 높임을 위하여

강 만 길 _ 상지대학교 총장

돌이켜 보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대학 캠퍼스는 매일같이 최루탄 연기로 뒤덮이고 교정은심심찮게 군인들의 주둔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말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 새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두어지고 계간지까지 나오게 되어 축하의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라는 것은 결국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고 만다는 진리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의 투쟁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오게 했고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기념사업이란 결코 지난 일을 기억하고 되살리는 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되살아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데만 한정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려는 데 그 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그것에 못지 않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가 같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로 오면서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의 결과 정치적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전진했다고 하겠지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주주의는 아직 제 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문민정권 아래서 닥친 이른바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신자유주의적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되면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것에 따라 사회적 민주주의도 허점 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0년간의 군사독재 시대에 뿌리내린 군사문화적 요소가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 파고든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의식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해서 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수준이 저절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의식과 행동이 따를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하는 계간지도 우리 민주주의를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는 마당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기념사업의 차원을 넘어 민주화운동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할 만큼 가고 만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직선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지난 날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같지는 않다 해도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멈추게 하거나, 나쁘게는 뒷걸음치게 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이런 반민주주의적 상황이 대체로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다가오는 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가 앞으로 민주주의 노선과 반민주주의 노선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투철한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는 또 하나의 깃발이 될 것을 믿으며 축하의 인사를 줄입니다. ■